

##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 효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1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 유형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 자료 중 8차패널을 활용하여 출산이 있기 전년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첫째아 출산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중에서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아 출산부터 노동시장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용어:** 노동시장 참여, 노동시장 참여형태, 출산 이행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10047117, 실시간 인구현황 파악 및 전망과 경제·사회 현상의 분석·예측을 위한 분산·병렬 다차원 인구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교신저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lss@kihasa.re.kr)

■ 투고일: 2014.7.31    ■ 수정일: 2014.12.4    ■ 게재확정일: 2014.12.22

www.kci.go.kr

## I.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 가임기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은 다소의 불규칙성은 존재하나 1960년 6.0에서 2005년 1.08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1.3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 이하에서 지속될 경우를 저출산현상(syndrome of low fertility)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현상은 1983년 이래 현재까지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현상(syndrome of lowest low fertility)이 10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율 변동 추이는 시기에 따라 상이한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이래 1983년까지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인구대체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데에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1.5~1.7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은 정책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소자녀관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이삼식 외, 2005).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로 많은 연구들은 1997년에 발생한 IMF외환위기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은기수, 2005; 공선영, 2006; 이성용, 2006; 김두섭, 2007).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미혼자로 하여금 결혼 이행을 어렵게 하고 기혼자로 하여금 생계부양을 어렵게 하면서 출산을 억제하거나 지연하게 된 것이다(은기수, 2005). 2001년 이래의 초저출산현상 지속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백선희, 2004; 장지연, 2005; 이삼식, 2006; 정성호, 2010). 이들 연구들에서는 저출산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양육비 부담, 교육비 부담, 일-가정양립곤란, 가치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원인들 중 일-가정양립 곤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로 이들의 노동시장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변화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고학력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면서 성별분업과 공사의 엄격한 분리를 토대로 한 남성일인생계부양가족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부부일인생계부양가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이삼식 외, 2007).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여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40%초반에서 2013년 현재 50%수준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통계). 통계청(2014)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인생계부양자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대화과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이 보편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에 대한 공백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하여 모성권 보장을 위한 탈상품화 수준이 낮으며, 아동양육의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마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는 있어도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동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이삼식 외, 2007). 결국, 여성들은 일-가정양립 곤란을 겪게 되고, 이는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 사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1명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이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이유로 일-가정양립 곤란을 제시한 비율이 2005년 11.8%, 2009년 14.3%, 2012년 15.2%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일-가정양립 곤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실질적으로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김우영, 2003; 신혜원 외, 2009; 이삼식 외, 2009a; 민현주·김은지, 2011).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유무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하게 취업하고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취업여성의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등에 따라 근로환경 및 고용안정성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여성의 일-가정양립 정도나 출산의향 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수 여성은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 중 관리자·전문직 비율은 22.4%이며 사무직은 18.8%, 서비스·판매직은 30.5%이다<sup>1)</sup>.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수준(2014.03월 기준)이다<sup>2)</sup>.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60.5%로 나타나는데<sup>3)</sup>, 우리나라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http://www.kosis.kr)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www.kosis.kr](http://www.kosis.kr)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상당수는 제도권 밖에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간 일부 연구(이재경 외, 2006; 서지원·이기영, 1997; 김영옥, 2002)에서 여성의 직종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직종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 출산 후 취업지속성이나 출산 이행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직종에 속하더라도 고용지위에 따라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예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상용직인지 임시일용직인지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이 상이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질적으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형태에 적합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여부가 출산순위별 출산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직종-종사상지위 조합)가 출산순위별 출산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출산 간 관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Smith-

3) 통계청(2014).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Lovin & Tickamyer, 1978; Jones, 1982)하는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율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한다(Ridley, 1959; Waith & Stolzenberg, 1976; Ware, 1976; Hout, 1978). Cramer(1980)는 단기적으로는 출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이들 연구들 모두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간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주된 이유로는 산업화시대 이전 농경사회에서는 여성이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indfuss & Brewster, 1996). 이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는 여성들은 출산을 축소하여야 하며, 기 출산 자녀에 대한 돌봄을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산업화 사회의 여성들은 대개 이 두 가지 모두를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여성이 일을 하는 동안 모(母)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을 받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Brewster & Rindfuss, 2000).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두 가지 역할을 양립할 수 없는 여성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이 중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포기한 대신 노동시장 참여를 선택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선택이 가족규모를 제한하여 노동시장참여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결과일 것이다(Weller, 1977). 또한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된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Weller, 1977). Becker(1981)는 자녀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보다 시간집약적 투입을 요하며, 그로 인하여 소득이 상승하면 자녀의 기회비용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기회비용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간의 가치 모델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것을 전통적으로 여성이 전담해왔기 때문에 남성의 소득은 자녀출산에 대하여 소득효과(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의 소득은 가격효과(부적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로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어 자녀의 기회비용이 소득의 증가율을 능가하여 상승함으로써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뚜렷이 나타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관계에 대하여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 매우 작아

출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결혼이나 출산 후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Becker, 1991).

실로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Oppenheimer(1973)는 18~64세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1900년에는 미국 여성들이 대개 결혼이나 출산 이전까지만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복귀하지 않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참가율이 계속 감소하는 L자형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1950년부터는 출산 이후 35세 이상 여성에게서 노동시장의 (재)진입 현상이 발생하여 M커브 모습이 발견된바 있다. Jones(1981)의 연구에서는 추가출산을 희망하는 취업 여성의 임신율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Engelhardt와 Prskawetz(2002)의 연구에서도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간의 양립이 어려워질수록 출산율도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Waith와 Stolzenberg(1976)는 35세 여성에게 자녀수에 대한 계획은 노동시장참여 계획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계획은 총 출생아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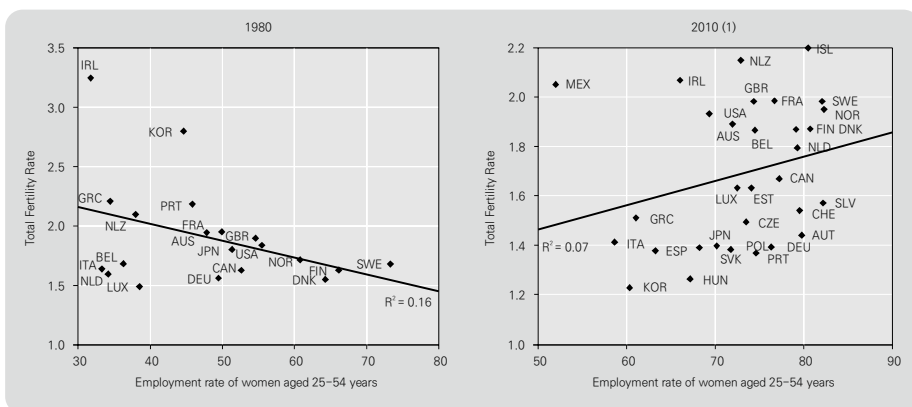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40% 초반에서 2013년 50%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남성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M-curve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30대에 결혼이나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이후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44세 기혼여성 중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50% 수준에 달한다(이삼식 외, 2009b). 통계청(2013)의 조사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초등학교 자녀 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이 20.1%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에서 그 원인에 대하여 일과 출산 및 육아가 병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출산, 어린 자녀의 양육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우영(2003)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최근

세대(25~34세)로 오더라도 결혼과 출산 전후 취업률 자체는 높지만 결혼 및 출산 후 취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이전세대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 없이 저학력자뿐만 아니라 고학력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숙과 김영혜(2003)의 연구에서도 M자형의 생애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에게 가족 역할과 노동 역할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는 변형된 M자형인 빠른 재취업형(가파른 M자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경우 첫째아 출산 후 바로 노동시장에 복귀함에 따라 첫째아와 둘째아 간 출산간격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결혼 전 취업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생애사건을 전후하여 직업세계의 선택권을 포기하면서 부모중심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차승은, 2008). 한편, 자녀 출산순위에 따라 취업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3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 출산, 6세미만 자녀 여부 등의 생애사건이 여성의 취업경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박수미(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결혼이나 첫째아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어느 정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둘째아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출산율과 부적(-)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Engelhardt 외(2004)는 여성 고용과 출산력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1960~2000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합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시계열 자료에 벡터오차수정 모델(vector error correction models)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양 방향에서 인과성이 발견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는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개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역할을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의 동시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부터 시작된 부모보험제도 등의 잘 정비된 휴가휴직제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가 출산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점차 완화되었다. 첫째아 출산 후 전일제로 남아있는 여성의 비율은 1970~1972년 25.4%에서 1988~1990년 47.8%까지 증가하였으며, 첫째아 출산 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고용 지위가 변화된 비율은 동기간 11.5%에서 6.9%까지 감소하였다(Sundström & Stafford, 1992). 실제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후반~1990년

대 초반 유럽국가들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였다. 1960~2000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 관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부적(-) 관계가 뚜렷이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부적(-) 관계의 영향력이 완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양육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Engelhardt et al., 2004). 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은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 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비교



주: 이하 알파벳 순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OECD (2014),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 2. 취업여성의 경제활동특성(직종 및 종사상 지위)과 출산 이행 간 관계

일부 연구에서는 단순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취업여성이 가진 경제활동 특성별 차이까지도 보고 있다.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취업여성들이 일-가정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경 외,



2006). 일부 직종은 직장에서 떠나있는 동안 시간 및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 등이 커져 (Desai & Waite, 1991)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거나 꺼려할 수 있으며, 다른 일부 직종들의 경우에는 휴가휴직제도,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절 등이 가능하여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전문직 등 여러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녀 출산을 늦출 수도 있다(Edwards, 2002).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더해 가장장적 가족 및 사회문화가 여전히 강력한 규범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제 등의 비정규 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되었고,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등으로 여성의 비정규직이 확산된 바 있다(정성미, 2005). 한국사회에서 대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복지혜택, 급여, 고용지위 등이 열악함을 고려할 때 취업여성들의 경제활동 특성별 차이도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여성의 직종에 따라서는 모든 직종의 여성들이 '직장=남성, 가족=여성'이라는 성별화된 사회(gendered society)에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직종에 따라 대응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재경 외, 2006). 전문직과 관리직 여성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위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순직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가능한 출산을 미루었다가 출산과 함께 퇴직하고 자녀양육기를 지낸 후 다시 저임금 단순직으로 재진입하는 생애과정이 보편적일 수 있다(장지연, 2005). Ware(1976)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전체 취업여성에 비해 평균 가구원 수가 10%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다른 직종의 여성에 비해 평균 가구원 수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국 여성들의 직종별 첫째아 출산 지연 정도를 살펴본 Edwards(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1972년에는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서비스, 판매직, 기능직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더 늦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여성의 출산 지연 현상은 1980년대, 1990년대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 1994년 전국 출산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의 생애주기(가족 형성기, 재생산기, 집중육아기, 육아 완료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살펴본 이현송(1996)의 연구에 의하면 전

문/준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족형성기와 재생산기까지는 10% 전후 수준을 차지하나, 집중육아기에는 그 비율이 3%수준까지 감소하고 이후 그 수준이 지속됨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양육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의 경우 직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족형성기와 재생산기에서 취업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 직종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한편, 양육의 요구가 미치는 영향력이 전문/준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들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문·중간관리직 여성들의 경우 경제력 및 친족자원 등의 활용을 통해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서비스·생산직 종사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 등으로 잦은 퇴사와 이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직 여성의 취업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박수미(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전문직이나 고위관리직에 진출한 취업여성들의 경우 여전히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이들은 일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인정, 가족성원의지지, 비용부담을 통한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을 활용하면서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다(강이수, 2007). 그러나 이들과 달리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직 여성들처럼 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사서비스를 대행해 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 일과 가족에서 오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강이수, 2007).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가족주기별 취업 기혼여성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홍찬숙(2013)에 의하면, '자녀출산'의 사건은 사무직 기혼여성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며, 전문직·준전문직 여성에게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과 기능조립직 기혼여성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취업을 하고 있으며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력형성이 거의 불가능하고 고용안정성 및 소득이 낮은 판매서비스직, 기능조립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에게는 자녀양육의 문제보다 경제적 필요가 더욱 중요한 반면, 사무직 기혼여성은 대체로 자녀의 영아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전문직·준전문직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보다 자녀교육이 경력단절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삼식(2012)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출산수준은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자영업자 부부의 경우 일하는 시간과 자녀양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사한 결과가 김두섭(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자 순으로 출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용(2009)은 출산순위별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종사상지위의 경우 고용주·상용근로로 있는 여성이 그 외 여성에 비해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경력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위에 속한 여성이 출산이행을 덜 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 Tanturri와 Mencarini(2008)는 2002년 도시의 무자녀가구(40~44세)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탈리아인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한 여성의 경우 임시직이고 탄력적인 근무스케줄을 가진 경우 출산을 연기 혹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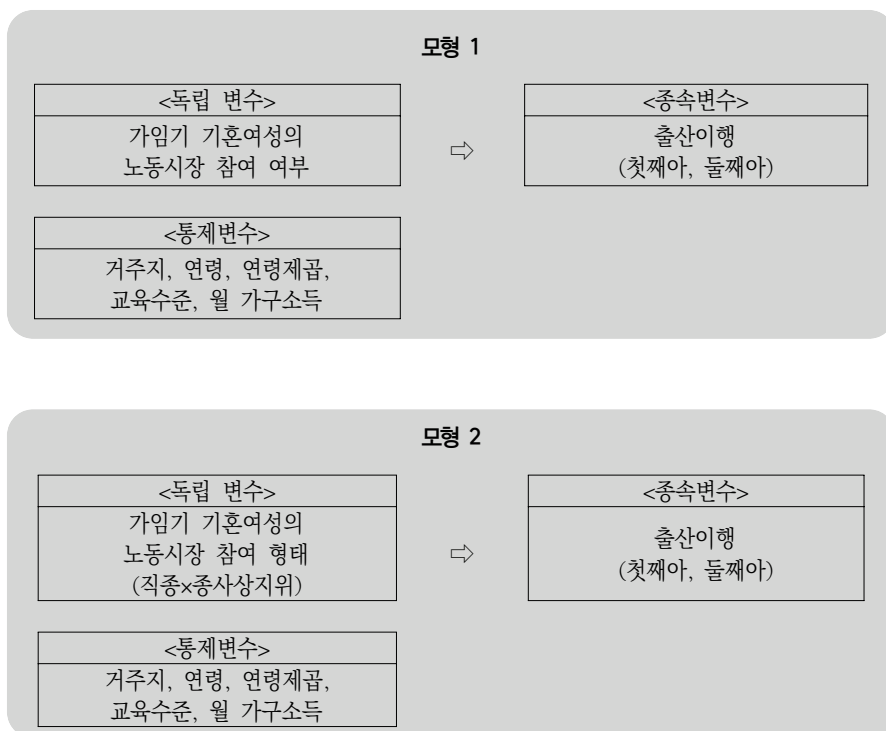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정책은 주로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와 같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제도적 혜택을 받는 집단도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진 특성에 따라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동일한 직종이라 할지라도 종사상지위에서 오는 차이로 근로환경(일-가정양립제도 이용 가능성 등)이나 고용관계(계약기간의 안정성 등) 등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취업여성들의 취업여부별 출산력 차이를 살펴보는 데에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직종과 종사상지위를 동시에 고려한 노동시장 참가형태가 여성의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 1. 연구방법 및 이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그림 2]와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참여형태(직종×종사상지위)가 출산순위별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변수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그림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출산순위별 출산 이행 여부에 노동시장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농어가 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주 외, 2013).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는 약 7천 가구(14천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6년에 실시되었다. 2013년에 실시한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까지 원가구 중 약 5천 가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포함하면 약 7천 가구(14천 가구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5~49세 가임기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들 기혼 여성은 조사시점부터 매년 개인의 기본 특성, 경제활동상태, 출산 경험 여부 등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기준시점에 대한 내용은 2013년 8차 패널에서 조사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첫째아 출산 이행과 둘째아 출산 이행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셋째아 출산 이행의 경우는 사례수가 많지 않은데다가<sup>4)</sup>, 이 연구에서 초저출산현상과 관련하여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이행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출산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t$ 년도 상황을 고려하고,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t-1$ 년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다. 물론, 노동시장 참여 이외에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요인(통제변수)들 역시  $t-1$ 년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될 변수들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출산 경험 여부'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기혼여성의 거주지, 연령 및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독립변수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참여 형태를 적용하였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 종사상지위를 결합하여 생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을 3개의 군(group)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문직(고위관리직, 전문가 등),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농업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등)의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직업군과 종사상지위군을 결합하여 총 9개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생성하되,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경우 비임금근로자를 직업별로 세분

<sup>4)</sup> 실제로 셋째아 이상 출산이행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수들이 적어 분석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화할 경우 그 사례수가 너무 적으므로 직업과 무관하게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노동시장 참여 형태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는 전문직종 상용근로자, 전문직종 임시·일용근로자, 사무직종 상용근로자, 사무직종 임시·일용근로자, 서비스·판매직종 상용근로자,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 총 7개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포함시켰다.

표 1.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

변수명		변수 내용
종속변수	출산 이행 여부	귀하는 ○○○○년도 1년간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출산 이행 아니오 = 출산 미이행
통제변수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시, 군
	연령	만 나이(세)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월 가구소득	월 가구소득 = 연간 경상소득 ÷ 12
독립변수	노동시장 참여 여부	취업, 비취업
	노동시장 참여 형태	전문직종 상용근로자, 전문직종 임시일용근로자, 사무직종 상용근로자, 사무직종 임시일용근로자, 서비스·판매직종 상용근로자,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전문직은 고위관리직, 전문가, 군인 등 *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 기능인, 기타 등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등 포함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기혼여성(15~49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분석 기준시점 이전에 자녀가 없는 여성의 거주지로는 시 및 도농복합군이 4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27.7%), 서울특별시(21.1%), 군(1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 및 도농복합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50.7%) 정도이며, 그 다음으로 광역시(25.9%), 서울시(17.7%), 군(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여성은 35.4세이며,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7.8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58.4%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41.6%)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50.4%)가 대학교 졸업 이상(49.6%)인 경우보다 많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무자녀인 경우 월 443만원, 1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 월 47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비취업여성은 33.0%, 취업여성이 67.0%로 취업 중인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1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 중인 비율이 54.3%, 비취업 중인 비율이 45.7%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사무직 상용근로자가 2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23.0%), 전문직종 상용근로자(19.3%), 전문직종 임시일용근로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가 2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종 상용근로자(18.0%), 비임금근로자(16.8%), 사무직종 상용근로자(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분포

(단위 :%)

	무자녀 여성(n=226)	1명을 둔 여성(n=656)
거주지		
서울특별시	21.1	17.7
광역시	27.7	25.9
시, 도농복합군	45.8	50.7
군	11.7	5.7
연령	35.4세(7.89)	37.8세(8.0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6	50.4
대학교 졸업 이상	58.4	49.6
노동시장 참여 여부		
비취업	33.0	45.7
취업	67.0	54.3
노동시장 참여 형태		
전문직종×상용근로자	19.3	18.0
전문직종×임시일용근로자	12.2	7.2
사무직종×상용근로자	24.1	15.9
사무직종×임시일용근로자	6.4	4.6
서비스판매직종×상용근로자	7.3	9.0
서비스판매직종×임시일용근로자	23.0	28.6
비임금근로자	7.7	16.8
월 가구소득	월 443만원(252.1)	월 470만원(287.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거주지, 교육수준, 기 출산자녀수, 가구소득, 노동시장 참여형태의 경우 t-1 적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7~8차 패널)



## 2. 연구결과

### 가. 출산순위별 출산이행 비율

가임기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출산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거주지별 첫째아 출산 이행 비율은 서울(31.6%), 광역시(27.7%), 시 및 도농복합(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아 출산 이행 비율은 서울(9.7%), 군(7.8%), 시 및 도농복합(6.9%), 광역시(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첫째아 출산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30세 미만(40.9%)과 30~35세 미만(42.4%)에서의 출산이행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35세 이상에서는 2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둘째아 출산이행 비율의 경우 30세 미만(19.0%), 30~35세 미만(11.7%), 35세 이상(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이행 비율의 경우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에 비해 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첫째아 출산이행 확률은 비취업인 경우(37.7%)가 취업인 경우(17.8%)에 비해 첫째아 출산 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별 첫째아 출산 이행비율은 비임금근로자(43.5%), 전문직종 상용근로자(38.2%), 사무직종 임시일용근로자(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여부별 둘째아 출산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자인 경우(3.4%)에 비해 비취업인 경우(12.2%)에 둘째아 출산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참여형태별로는 전문직종 상용근로자(7.2%), 사무직종 상용근로자(6.7%), 사무직종 임시일용근로자(6.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순위별 출산이행 비율

(단위 : %)

	무자녀 → 첫째아 출산 이행	첫째아 → 둘째아 출산 이행
현 거주지		
서울	31.6	9.7
광역시	27.2	6.8
시, 도농복합군	21.0	6.9
군	6.9	7.8
연령		
30세 미만	40.9	19.0
30~35세 미만	42.4	11.7
35세 이상	20.1	7.5
교육수준		
고졸이하	19.7	3.1
대졸 이상	27.5	11.8
노동시장 참여 여부		
비취업	37.7	12.2
취업	17.8	3.4
노동시장 참여 형태		
전문직종×상용근로자	38.2	7.2
전문직종×임시일용근로자	0.0	3.8
사무직종×상용근로자	7.6	6.7
사무직종×임시일용근로자	32.9	6.3
서비스판매직종×상용근로자	14.9	0.0
서비스판매직종×임시일용근로자	9.1	0.5
비임금근로자	43.5	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7~8차 패널)

## 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첫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15~49세)의 첫째아 출산 이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주지와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은 모형 1, 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첫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은 거주지,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까지는 출산 이행 확률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출산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출산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 가임기간 축소, 후천성 불임증,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참여 여부만을 포함한 모형1의 결과, 노동시장 참여가 첫째아 출산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외 선행연구들(White & Kim, 1987)에서는 여성들이 첫째아를 출산하기 이전까지는 ‘자녀양육’을 ‘일’의 경쟁상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첫째아 출산은 비교적 이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아 출산부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 후 여성들이 경력단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첫째아 출산마저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별로 보면(모형 2) 부적(-) 효과가 사무직종 상용근로,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나타났다. 즉, 비취업 여성에 비해 사무직종 상용근로,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첫째아 출산 이행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의 직종별 출산행태를 살펴본 국내 연구(박수미, 2002; 강이수, 2007; 홍찬숙, 20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들 연구결과들에서는 전문직종 종사 여성들의 경우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이나 인적자원으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환경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서 오는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손승연(2005)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여성들은 주위로부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전폭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및 친척 자원,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

및 시간 투자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있으나, 양육자가 결정되고 난 후에는 '일-가정 양립'을 큰 고민거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비스판매직 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이탈 후 재복귀, 경력 쌓기에 대한 부담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동일 직종의 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이재경 외, 2006). 여성가족패널 1~3차자료에 대한 중단 분석에서도 여성들의 경우 서비스직과 판매직으로의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동 직종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고 문턱이 높지 않아 빈번한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오은진·이한나, 2013).

본 분석에서 사무직종 상용근로자 여성과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여성의 경우 비취업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직종 임시일용직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동일한 위치로 재진입하는 것이 어려워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실로 사무직의 경우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이나 가사돌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관료조직내 성장의 한계를 느끼며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불안정한 시간제 취업이나 배우자 사업을 보조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하방향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유희정, 1990). 여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전문직종 여성처럼 가사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가정양립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함께 보살핌에 공백에 대한 고통이 많아(이재경 외, 2006)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김준기와 양지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판매 및 기타 근로자의 경우 관리직 및 전문직에 비해 일-가정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판매직 종사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이중의 경제적 부담(자녀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과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가계소득 상실)을 가져와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기혼여성(15~49세)의 노동시장 참여가 첫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승산비)

	모형1(n=212)	모형2(n=212)
현 거주지(군)		
서울	3.22	3.16
광역시	3.47	3.10
시, 도농복합	3.71	2.30
연령	2.37*	2.14
연령 <sup>2</sup>	0.99*	0.99*
교육수준(고졸이하)		
대졸 이상	0.66	1.23
경상소득(월)	1.00	1.00
노동시장 참여 여부(비취업)		
취업	0.19***	
노동시장 참여 형태(비취업)		
전문직종 × 상용근로자		0.31
전문직종 × 임시일용근로자		0.00
사무직종 × 상용근로자		0.04***
사무직종 × 임시일용근로자		0.24
서비스판매직종 × 상용근로자		0.15
서비스판매직종 × 임시일용근로자		0.20*
비입금근로자		4.77
df	8	14
Likelihood Ratio	60.5***	85.6***
pseudo-R2	0.303	0.399

\*p<0.05 \*\*p<0.01 \*\*\*p<0.001

주: 1) 거주지, 교육수준, 기 출산자녀수, 가구소득, 노동시장 참여형태의 경우 t-1 적용

2) ( )은 준거집단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7~8차 패널)

## 다.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둘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15~49세)의 둘째아 출산 이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모형(3~4)에서 통제변수 중 거주지와 연령은 둘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 이행은 결혼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강하여 앞의 모형에서는 연령이 어느 정도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나, 둘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은 특정한 시기에 맞추기보다 개인 또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그만큼 출산이행 연령이 불규칙해져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학력층일수록 다출산으로의 이행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 고학력층일수록 둘째아 이행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연령을 통제한 효과로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학력층이 만혼화 경향이 높아 둘째아 출산 이행에 불리하나 동일한 연령 선상에서는 오히려 추가출산에 유의한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저학력층 보다 상대적으로 둘째아 출산 이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베커(Becker)의 소득효과이론에 의하면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가처분소득이 높아져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가임기 인구집단 중 중산층은 주로 맞벌이 형태로서(이삼식 외, 2012) 소득수준보다는 일-가정양립 곤란 정도 등에 따라 둘째아 출산 이행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결과적으로 본 분석에서도 경상소득 수준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는 첫째아 출산 이행과 마찬가지로 둘째아 출산 이행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첫째아 출산 이후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성이 연령이 많아지고 일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 경험을 겪은 경우, 일-양육의 갈등을 더욱 크게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Stolzenberg & Waite, 1977). 즉, 첫째아 출산 당시 직접 경험하였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학습효과로 작용(White & Kim, 1987)하여 출산을 일을 함에 있어 경쟁요소로 인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을 계속하려는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둘째아 출산 이행은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양육부담도 동시에 커져 그만큼 일-가정 양립

정도 등 근로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 이행과 달리 비취업 여성에 비해 사무직종 상용직 근로 여성의 경우에만 둘째아 출산을 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무직종 상용 종사자의 경우 전문직 여성에 비해서는 가족돌봄서비스 구매, 경제력,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가능성 등이 낮아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이들 여성들은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뒤에는 동일한 위치로 재진입하는 것이 어려워 그만큼 체감되는 기회비용(가격효과)이 매우 커 결과적으로 양육부담마저 큰 둘째아 출산 이행을 포기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첫째아 출산이행의 결과와 달리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의 부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 있는 여성들은 첫째아 출산 시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이행 확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첫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녀 출산·양육이 가능한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둘째아 출산 이행에 있어서 부적(-)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가족돌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직업 위신이 상대적으로 낮고 급여가 적은 여성 집중 직종에 종사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Glass, 1988).

표 5. 기혼여성(15~49세)의 노동시장 참여가 둘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승산비)

	모형3 (n=652)	모형4 (n=652)
현 거주지(군)		
서울	1.76	1.95
광역시	0.87	0.95
시, 도농복합	0.92	1.00
연령	1.13	1.06
연령2	1.00	1.00
교육수준(고졸이하)		
대졸 이상	2.97 **	2.74 *
경상소득(월)	1.00	1.00
노동시장 참여 여부(비취업)		
취업	0.28 **	
노동시장 참여 형태(비취업)		
전문직종 상용근로자		0.39
전문직종 임시일용근로자		0.33
사무직종 상용근로자		0.30 *
사무직종 임시일용근로자		0.64
서비스판매직종 상용근로자		0.00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		0.07
비임금근로자		0.33
df	8	14
Likelihood Ratio	72.1***	75.3***
pseudo-R2	0.146	0.152

\*p<0.05   \*\*p<0.01   \*\*\*p<0.001

주: 1) 거주지, 교육수준, 기 출산자녀수, 가구소득, 노동시장 참여형태의 경우 t-1 적용

2) ( )은 준거집단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7~8차 패널)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형태(직종-종사상지위별)별로 세분화하여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첫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첫째아 출산 이행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별로 보면 세분화하였을 경우에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부정(-)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후 첫째아 출산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취업여성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첫째아 출산마저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만 나타난 것은 직종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도 등 근로환경이 상이하게 때문일 것인데,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경우 전문직·관리직 등에 비해 돌봄서비스 구매에 대한 경제력이 낮고 일-가정양립제도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의 비탄력성 등으로 출산 이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사무직종의 경우 서비스판매직 등에 비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쉽게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에게서 나타난 부정(-) 효과는 이들의 낮은 직업위신과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불안정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의 영향도 첫째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에게 둘째아 출산은 양육 부담 과중과 함께 기회비용도 커져 둘째아 출산에 그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사무직종 상용근로인 경우에 둘째아 출산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효과가 나타났는데,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업의 안정성과 일정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장받는 대신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직종 및 종사상지위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등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첫째아 출산이행의 결과와 달리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자의 부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녀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형태를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에 이용한 한국복지패널이 2006년부터 시작된 관계로 초저출산현상 이전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참여 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었다. 앞으로 한국복지패널 실시기간이 늘어나면 출산을 추이에 따른 기간별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출산이행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부정적 효과를 더욱 크게 추정할 개연성을 갖는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출산이 발생한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임신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나 출산 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을 분리해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들은 출산 전 노동시장 이탈 시기 등을 세밀하게 하여 모형을 보다 정교화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제도 활용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직장형태(공공기관, 민간기관 등)나 직장규모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취업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를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이들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직장요인까지도 고려하는 등 취업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간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노동시장참여 여부만을 고려한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형태(직종-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p>5)</sup>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Kim, H. S. (2014).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0(3), pp.252-273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패널에서는 출산년도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 참고문헌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 사회과학, 19, pp.119-149.
- 강이수(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7(2), pp.1-35.
- 김두섭(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pp.67-95.
- 김영옥(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25(2), pp.5-40.
- 김우영(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3(1), pp.67-101.
- 김준기, 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pp.251-280.
- 민현주, 김은지(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pp.198-222.
- 박경숙, 김영혜(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26(2), pp.63-90.
-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6(2), pp.145-174.
- 백선희(2004).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74, pp.40-43.
- 서지원, 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pp.99-110.
- 손승영(2005).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노동 경험과 딜레마: 강한 직업정체성과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21(3), pp.67-97.
- 신혜원, 최명섭, 김의준(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연구, 10(2), pp.33-47.
- 오은진, 이한나(2013). 기혼여성의 직업 이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52(1), pp.133-161.

- 유희정(1990). 사무직 기혼여성 노동에 관한 연구 : 대기업 공채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3(WIN), pp.95-114.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102, pp.25-35.
- 이삼식, 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외 4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11, pp.15-17.
- 이삼식, 윤희식, 박종서, 장보현, 최은영(2007). 출산·양육 부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서문희, 박세경, 윤희식, 진미정(2009a).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심층분석: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2009b).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12).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94, pp.34-47.
- 이성용(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pp.111-137.
-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32(1), pp.51-70.
- 이재경, 이은아, 조주은(2006).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생활 변화와 한계: 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2), pp.41-79.
-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30(WIN), pp.759-777.
- 이현주 외 16인(2013).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pp.45-56.
- 정성미(200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특징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노동리뷰*, 12, pp.45-55.
- 정성호(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9(1), pp.69-91.

- 차승은 (2008). 여성의 취업경력 (work career)과 자녀양육: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139-153.
- 통계청(2013).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2013.11.27.일자 보도자료.
- 통계청(2014).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 2014.6.25.일자 보도자료.
- 통계청(2014).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www.kosis.kr.
- 홍찬숙(2013). 1980~90년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 : 젠더 불평등 및 그 문화적 의미. *한국 여성학*, 29(3), pp.1-40.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achusette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es.
- Brewster, K. L.,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271-296.
- Cramer, J. C. (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2), pp.167-190.
- Desai, S., Waite L. (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p.551-566.
- Edwards, M. E. (2002). Education and Occupations : Reexamining the Conventional Wisdom about Later First Births among American Mothers. *Sociological Forum*, 17(3), pp.423-443.
- Engelhardt, H., Prskawetz, A. (2002). *On the Changing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over Space and Tim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MPIDR WORKING PAPER WP 2002-052, December 2002.
- Engelhardt, H., Kogel, T., Prskawetz, A.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 1960-2000, *Population studies*, 58(1).
- Glass, J. (1988). Job Quits and Job Changes : The Effects of Young Women's Work Conditions and Family Factors. *Gender and Society*, 2(2), pp.228-240.
- Happel, S. K., Hill, J. K., Low, S. A. (1984).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Childbirth. *Population Studies*, 38, pp.299-311.
- Hout, M. (1978). The Determinants of Marital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1960-1970 : Inferences from a Dynamic Model. *Demography*, 15, pp.139-159.
- Jones, E. F. (1981). The Impact of Women's Employment on Marital Fertility in the U.S., 1970-75. *Population Studies*, 35(2), pp.161-173.
- Jones, E. F. (1982). Ways in Which Childbearing Affects Women's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U.S. 1975 National Fertility Survey. *Population Studies*, 36(1), pp.5-14.
- Kim, H. S. (2014).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0(3), pp.252-273.
- OECD (2014).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 Oppenheimer, V. K. (1973). Demographic Influence on Female Employment and the Status of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pp.946-961.
- Ridley, J. C. (1959). Number of Children Expected in Relation to Non-familial Activities of the Wife.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37, pp.227-296.
- Rindfuss, R. R., Brewster, K. L.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Supplement: Fertility in the United.
- Smith-Lovin, L., Tickamyer, A. R. (1978). Model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Behavior and Sex Role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4), pp.541-557.
- Stolzenberg, R. M., Waite, L. J. (1977). Age, Fertility Expectations, and Plans for Employment, *American Sociology Review*, 42, pp.769-782.
- Sundström, M., Stafford, F. P. (1992).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and public policy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8, pp.199-215.

- Tanturri, M. L., Mencarini, L. (2008). Childless or Childfree? Paths to Voluntary Childlessness in Ita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1), pp.51-77.
- Waith, L. J., Stolzenberg, R. M. (1976). Intended Childbearing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 Insights from Nonrecursive Mode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pp.235-251.
- Ware (1976). Fertility and Work-Force Participation : the Experience of Melbourne Wives. *Population Studies*, 30(3), pp.413-427.
- Weller, R. H. (1977). Wife's Employment and Cumulative Family Size in the United States, 1970 and 1960. *Demography*, 14(1), pp.43-65.
- White, L., Kim, H. (1987). The Family Building Process: Childbearing Choices by P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2), pp.271-279.

이삼식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이며, 현재 저출산 및 인구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lss@kihasa.re.kr)

최효진은 경희대학교에서 가족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산, 가족, 인구이며, 현재 저출산, 인구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chj@kihasa.re.kr)

##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Lee, Samsik**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oi, Hyo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2013(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giving the first bir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gular clerks and non-regular service and sales workers appeared to be less likely to give their first birth. Secondly, the women in labor force appeared to be more likely to postpone or give up the their second birth. Such a negative impact appeared to be rather significantly for the regular clerks. It may be due to the tendency that their opportunity cost for giving their second birth is higher than those in other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

**Keywords:** Labo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Birth Order

www.kci.go.kr